



대한민국 대표 맛의 축제 제11회 순창장류축제가 오늘부터 순창전통고추장인속마을에서 내놓은 화려한 맛의 축제를 시작한다.

오늘 순창장류축제 연다

16일까지... 소스 활용한 70여가지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거리 가득

대한민국 대표 맛의 축제 제11회 순창장류축제가 오늘부터 순창전통고추장인속마을에서 내놓은 화려한 맛의 축제를 시작한다.

13일부터 16일까지 내놓는 이번 축제는 '자연의 맛 그대로 순창의 맛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장류와 소스를 활용한 70여가지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이다.

장류축제는 오늘 읍면 농약단의 민속놀이 경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판파르를 올린다. 오후에는 장&뮤직 뽕짝 인디밴드 경연대회와 장류축제의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설문도, 경수라, 주병선, 이애란, BIG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민속마을 EDM불빛소로 고추장인속마을을 밝히는 화려하게 장식하게 된다.

올해 장류축제는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대폭 강화해 가을 정취를 느끼며 가족이 추억을 쌓기에 안성맞춤 축제로 만든 점이다.

군은 관광객이 상시적으로 순창만의 색이 묻어나는 장류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전통장류상설체험장을 무대 전면에 배치했다. 상설체험장에서는 전통장류소스 만들기, 우리가족 매운떡볶이 만들기, 캐릭터 메주만들기, 전통놀이 한마당 등 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국가대표 매운맛 대회와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임금님 진상행렬은 대표적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국내최대 발효소스 토굴에서는 발효소스를 활용한 치킨과 발효 맥주로 즐기는 치맥페스티벌이 14일 15일 양일간 열린다.

또 소스를 활용한 소스요리 경연대회, 중국전통소스 전시회 등이 진행되며 글소스를 이용해 만든 주먹밥 150인분씩을 하루 세 차례 관광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행사도 대폭 강화됐다. 축제기간에 열리는 문화행사는 전라북도공연상주단체 공연을 비롯해 순창 5대 명창 공연, 소천위 기획콘서트 등 14종에 이른다. 무려서블락시 확대와 관광전용전기차도 운영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황숙주 군수는 "대한민국 대표 장맛의 축제 순창장류축제가 드디어 막을 연다"면서 "전통의 장맛과 다양한 소스를 활용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한 순창 장류축제로 둘러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농악경연대회, 15일 농악전수관에서 개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고창농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15회 고창농악경연대회'가 오는 15일 고창농악전수관에서 펼쳐진다.

고창농악경연대회는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 15개팀이 참여하는 경연대회이자 500여명의 고창 군민들이 함께하는 전통문화 축제의 장이다.

이번 고창농악경연대회는 특유의 어우러짐으로 사람을 한 데 모으는 신명의 힘을 지니고 있는 '농악'의 의미를 살려 한마음상(화합상), 열지구상(응원상), 깨달음상(구상상), 합박웃음상(인기상), 춤사위상(율동상) 등 특색 있는 일반상을 대폭 확대해 흥겨움을 나누고 소통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고창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팀은 고창군을 대표해 전북시군농악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고창농악경연대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농악'의

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옛 고창농악전수관을 증·개축해 조성된 '고창농악전수관' 준공식과 함께 축제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완공된 '고창농악전수관'에는 풍물질을 실내의 공연장과 고창농악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 넓고 쾌적한 연습실과 교육실 등이 마련되어 명실상부 '농악'의 문화관광 시설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제15회 고창농악경연대회와 '고창농악전수관' 준공식 행사를 앞두고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은 "바쁜 농사철임에도 밤마다 모여 기량을 연마하고 있는 고창군 14개 읍면 15개 농악단 단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새로 증·개축된 고창농악전수관을 고창의 전통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는 다짐을 전했다.

제15회를 맞이한 '고창농악경연대회'는 (사)고창농악보존회 주최·주관, 고창군, 고창군의회, NH농협고창군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후원으로 개최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호응

임실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6개 과정의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립도서관은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대상 '주산교실', '신나는 보드게임'을 비롯해 청소년 대상 '푸른꿈 영상제작소(UCC), 성인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지도자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뇌건강프로젝트', '수지침강좌' 등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연령대,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으로 총 100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큰 인기다.

군 관계자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 생애에 걸쳐 언제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임실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립도서관(☎40-2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태풍피해지역 위문품 전달

순창군이 태풍 차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주군에 1,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해 울주군민들이 태풍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줬다. 위문품은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대상(주)정정원, 사조산업(주)에서 기탁한 고추장 된장 쌈장 등이 현물로 전달됐다.

울주군은 지난 5일 태풍 차바로 인해 상당면에 시간당 최대 134mm씩 모두 319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강풍과 폭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커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히 순창군과 울주군은 지난 2011년 문화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류축제 등 양지역 축제는 물론 다양한 부문에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작은 정성이지만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울주군민들에게 이번 위문품 지원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순창군과 울주군이 문화교류 확대는 물론 여러줄 때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이웃같은 자매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경찰, 눈높이 교통안전 '인기'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중앙지구대(대장 박남규)는 "경찰관 아저씨, 이모 언니가세요"라며 반갑게 웃으며 배꼽인사를 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대로 눈높이 교통안전과 아동관련 범죄 및 아동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해 원생들과 보육교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원생 전원을 상대로 한명씩 아동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하여 사전에 미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고 지구대 경화, 순찰차 탑승 등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좌우살피기, 뛰지 말고 천천히 서행하기, 무단횡단하지 않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4대역 근절 홍보도 병행하였다.

박남규 중앙지구대장은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웃을 찾는 어린이집 원생 등 시민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관촌 등 6개 읍·면 일부 구간 녹물 발생"

진남군 부의장, 임실군의회 군정질문... "깨끗한 물 공급 계획 밝혀야"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12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심민 군수를 대상으로 201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가졌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진남군 부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진남군 부의장은 "지난 몇 개월간 임실상수도도 사용하는 임실읍을 비롯한 관촌, 신영, 신덕, 운암, 성수면 등 6개 읍·면 일부 구간에서 녹물이 발생하여 생활용수는 물론 음용수 사용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녹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러진 군정질문에서 김왕중 운영행

정위원장은 먼저 "열매의 고장 임실"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유실수를 군 청사 중앙에 식재하는 열매의 동산 조성"을 제안하며, '열매의 고장'에 대한 브랜드 제고방안에 대한 심 군수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전주시에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 협의의 진행상황과 예측되는 배분액에 대한 답변도 함께 요구하였다.

환경급 산업건설위원장은 "임실분향 인재학당 건립사업이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임실 분향인재학당을 조기에 착공할 것과 준공 및 개소 시기는 물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꼼꼼히 질의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나선 이성재 의원은 "도로 관리에 있어 우리군의 재정적 어려움 및 시간적 한계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도로 개설보다는 시설유지와 안전시설 개선에 중점을 뒀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 안전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 교통안전 위험 대상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심 군수의 구상을 물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다양한 군정질문으로 군민을 대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랄만한 대안을 찾아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열려

지난 1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린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11일 각 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로 이루어진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는 올해 남원시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미리 짚어보는 회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 등

안 심도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5,983억원이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노암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신정대로 개설, 교통대로 개설 등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그 필요성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엄밀하게 심사를 예정이다.

21일까지 예정된 이번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9일, 20일 양일간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제2차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확정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순회 전시·판매행사

임실군과 전북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12일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순회 전시·판매행사'를 실시했다.

군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정부처, 복지지원, 파일 등 사무용품은 비롯해 장갑, 물티슈, 세제류 등 우선구매대상 18개 품목과 전복장애

인보호작업장 등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제작한 품목이 전시·판매됐다.

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한 행사인 만큼 장애인 생산품 인식개선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법적 의무화한 장애인복지제도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소방서, 내죽도 방문 도서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

위험요소 사전 예방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12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고창군 부안면의 내죽도를 방문해 현장중심의 도서지역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죽도는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0.049km², 인구는 10가구 20명이 거주하는 섬이다. 도서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력이 미치지 힘든 한계가 있기에 고창소방서에서는 적

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소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안전대책은 매년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한 각종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요소 사전에 예방하고 현지 소방력 부족에 따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신속한 육상 소방력 지원체계 확보 등 소방안전협업체계 구축과 대형 재난사고를 대비한 종합 소방안전대책이다. 주요내용으로는 10월중에는 주막음

소방시설 20세트 기증 및 설치를 시작으로 소방여건을 파악하여 추가로 필요한 소방시설 등을 확인한다.

11월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마을공동 소화기함 비치 및 구급함 배부 등을 추진하며,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봉춘 고창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에 소외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